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3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 행동 지침 十

-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 2. 다시 교회로(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손달익 담임목사

한 해의 어두운 그림자가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고 새로운 희망을 품은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연 말연시의 들뜬 분위기보다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가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또 다시 새 힘을 주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용기와 정성을 다하여 시작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해부터 교회의 지표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정하고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여러 기관, 부서들의 협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온 것은 매우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이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판단과 자성으로 더 높고 숭고한 신앙의 정점을 향해 온 교회가 정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금년 한 해 다음의 일들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서울교회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하기 위한 각종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 존재양식과 지향성이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구조와 예산 편성 그리고 교육과 훈련 등 모든 것이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선교적이란 교세 확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역사 위에 구체적으로 펼치고 이루어지게 하는 일들입니다. 교회 성장은 매우 중요하지만 교회가 선교적으로 존재하면 교회 성장은 필연적인 결과로 수반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올 일 년은 교회 안팎의 여러 부분들을 가다듬고 정비하여 새로운 중흥의 토대를 마련하려 합니다. 이 일에는 바른 신앙 정신의 재정립과 관행의 개선 그리고 각종 규정과 제도를 가장 복음적인 내용으로 가다듬는 일까지 포함됩니다.

둘째, 치유를 넘어서는 회복의 영성 훈련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불행하게도 지난 수년간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와 성도들 모두 씻기 어려운 영적 상처를 입었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위한 영광의 상처로 기억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여전히 고통과 상처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 치유의 늪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영적 과제가 산더미처럼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침체된 한국교회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일, 사회적 공적 책임을 감당하는 일, 실망하고 교회를 등진 청소년들과 3040 세대들을 다시 교회로 돌이키는 일, 우리 사회의 제반 현안들의 해결에 마음과 뜻을 보태는 일 등 우리 손길이 필요한 선교 분야가 넘쳐납니다. 이 모든 일들에 우리의 영적 갱신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감당할 거룩한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교회 내의 소통과 일치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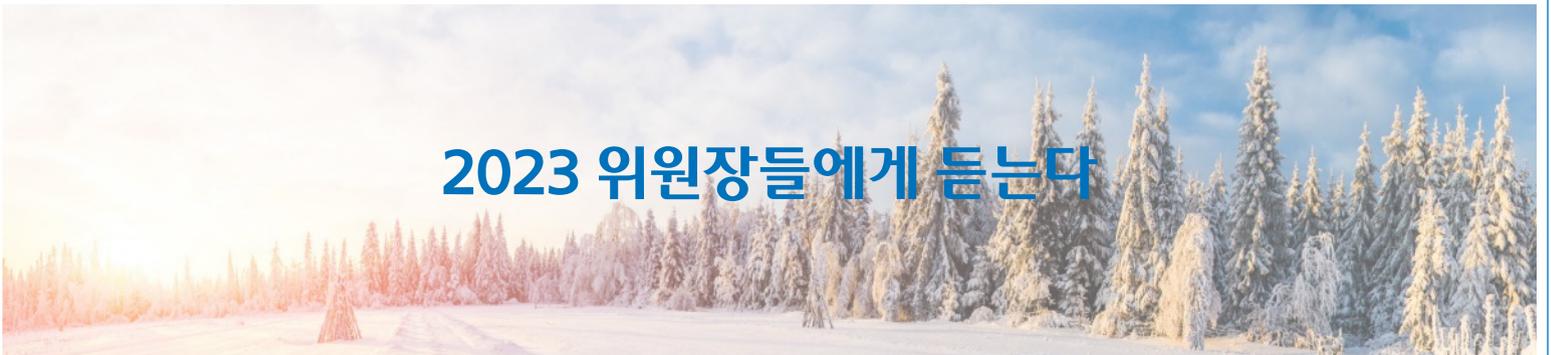
바울사도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우리 모두를 그 지체들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인 우리 모두는 서로 소통하고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 일치는 성령께서 베푸시는 영적 조화를 통해 이루어짐이 근본이지만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투명하고 원활한 소통구조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주인이며 동일하게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결정을 해서도 안 되지만 성도들의 의사에 반하는 교회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한 두 사람의 생각이 교회를 지배해서도 안 되지만 한 두 사람의 주장이 많은 성도들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행복한 교회 생활을 방해해도 안 될 것입니다. 신앙적이며 합리적인 의견들이 존중되고 헌신과 자기희생을 앞세운 십자가 정신이 교회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평화롭지만 정의롭고, 정의롭지만 따뜻한 교회가 되어 모든 성도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가 되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사랑하는 품격 높은 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 사명에 충실하고 미래지향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한 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새해에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서울교회 당회원 · 협동 목사 · 전도사 일동 -



2023 위원장들에게 듣는다

새 시대를 함께 시작하는 서울교회



이계홍 장로
(당회 서기)

2023년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입니다(마 22:37-40). 마 22:37-39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첫째도 둘째도 모자랐지만 한 해를 다 채우시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분쟁을 겪고 결국 분립이 되고 이에 따라 우리 안에 상한 마음의 상처가 클 수밖에 없는 서울교회가 마음의 치유를 위해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며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는 결단과 희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금년부터 3부 예배가 현대적 형식으로 변경하여 시작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이웃의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뀌었고 지역의 전도가 오랫동안 멈추었으며 평균이 실종된 세대 간의 균형이 노후 쪽으로 너무 많이 기울어져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청년들과 장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소통하며 교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출발합니다.

물이 함께 채우고 넘쳐흐르듯이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분쟁으로 빈 동지처럼 남은 자리를 채우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 1: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 하셨으니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연합하고 협력하여 다시 선한 사역에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년 역사의 새로운 지평이 되자!



오치열 장로
(기획위원장)

2023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교회의 30년 역사의 새로운 지평이 시작됩니다. 교회의 부흥과 국가의 발전 그리고 각 가정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에는 예배의 변경, 전교인 친교 모임, 향존직 선거 등의 여러 행사가 진행됩니다. 부족한 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더욱이 세계경제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 우리나라의 경제도 녹록치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

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능히 극복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멀티미디어의 또 하나의 직임을 맡았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매스미디어가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더 많은 결실이나 오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의 가용재원을 심분 활용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모두 협력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차고 넘쳐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예배



김승록 장로
(예배위원장)

그동안 서울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며 영광스럽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도록 열심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에는 3년 동안 계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비대면 예배가 일상화가 된 한 해였습니다.

이제 서울교회가 설립 30주년을 넘어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려는 중요한 시기에 저희 예배위원회에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또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주일 3부 예배를 일부 현대적

형식을 가미한 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행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영광스런 예배가 되어 서울교회 다음 세대들이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바지하는 예배위원회가 되도록 열심을 다 하겠습니다.

2023년 한 해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공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어 그동안의 많은 어려움에서 서울교회가 진정 회복되어 다시 부흥을 이루는 출발점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서울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진정한 찬양



최형렬 장로
(찬양위원장)

내 영혼아 여호와께 찬양하라
넓은 은혜 깊은 사랑 찬양하라

세상나라 요란하게 떠들어도
주의 나라 주의백성 평온하다

주의 능력 나타나니 찬양하라
주의 사랑 주의 명령 순종하라

사랑하는 서울교회 찬양대여
주님 사랑 교회 사랑 말씀 사랑

자기교만 자기자랑 그만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찬양하라

진실하며 정결하고 아름답게
오직 주만 오직 찬양 오직 영광

가브리엘 할렐루야 임마누엘
베들레헴 호산나와 시온이여

분열에서 위험에서 미움에서
노하심과 자비하심 건짐받음

그레이스 핸드벨과 갈렙이여
우리 모두 옆드리어 경배하자

구속하심 감사하고 감사하라
물로 씻고 불로 태워 정결하다

예수님을 닮은 교회학교를 기대합니다



김혜연 장로
(교육위원장)

서울교회를 사랑하셔서 회복하시고, 31년 동안 성장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교육위원회는 “천국시민 양성”의 사명 아래, “성장”이라는 목표를 부여 잡고 출발합니다.

22년도는 코로나로 비롯된 비대면 문화를 넘어서기 위한 말씀 양육 환경과 체제 마련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과 교육체계, 교사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였습니다.

23년은, “Coram Deo”(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기초 위에, 부서 특성에 맞는 말씀 중심 예배, 열린 프로그램 확대, 3부 예배의 변화 등을 통하여 전통과 젊음이 교감되어지는 통로이기를 소망합니다.

부서 맞춤형 양육, 성경공부 및 성경통독, 성경 암송 활

동으로 말씀이 내 삶의 흔적으로 깊게 자리잡도록 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감사로 시작하며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참된 예배자”를 양성하는 교회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젊고 열정이 넘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교역자들이 각 교회학교에 배치되었고, 언제나 솔선수범하며 기도와 사랑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100여 분의 귀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 마음을 담은, 새벽이슬 같은 서울교회 교회학교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함께 건강한 서울교회를 꿈꾸며 자라나는 생명들을 위해 기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실 서울교회 성도님들을 기대합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노제현 장로
(새가족위원회)

23년에도 새가족부 교사들과 함께 새로 나오시는 분들을 가족과 같이 친밀하게 돌보아 순직하게 교회에 정착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전도대가 재구성되어 왕성히 활동할 계획이므로, 새가족이 많이 오실 것으로 생각되니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직분자 양성부도 활성화하여 새가족부를 수료하신 성

도들께서, 할 일 많은 교회에 일원으로 봉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교사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 그리고 기도로 협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차영도 장로
(전도위원회)

2020년 10월 21일(수)은 교회가 회복된 날입니다. 5년간의 교회 분쟁과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의 전도사역이 침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침체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두어야 하겠습니까? 전도는 서울교회 교인이라면 모두가 해야만 하는 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 주변에서 노방전도 활동 시 학생들이나 행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을 통한 “예수님”이라는 말에 전도를 받는 사람들의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뿌리는 자요. 거두는 자는 성령님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그간 분쟁으로 중단되었던 70인

전도대를 재건하여 매주 2회 이상 전도활동을 시작합니다. 아울러 남선교회와 여전도회의 각 지회, 교회 각 기관에서도 적어도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인 전도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묻고 있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며 어찌 주저하거나 회피할 것입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 나를 보내주소서 응답하는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전도의 능력을 부여 주실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재개된 농어촌 100교회 운동 지원에도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기 장로
(선교위원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 교인들의 기도와 교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선교사님들의 복음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신 선교위원회와 당회에 감사드립니다.

수년간 교회의 분쟁으로 인하여 땅끝까지 말씀의 전하며 만민에게 전도라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한 선교사역의 지원에 부족함이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물질적인 후원도 중요하지만 교인 여러분의 기도와 도고기도 팀의 끊임없는 기도가 여러 선

교사님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사역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께서 어려움 없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게 교인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한 사마리인처럼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한 해가 되길...



차도훈 장로
(구제위원회)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뒤돌아보면 수없이 어려웠던 시간들을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시는 손길로 극복하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2023년을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기만 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곳으로 흘러보내고 있는지를 뒤돌아보면서, 아직도 받을 것만을 계수하고 있는 나의 모습에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도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기도 하였으며, 지난 3년간은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 팬데믹의 쇼크로 가늠도 못 할 격랑 속으로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회는 헤아릴 수조차 없는 크신 사랑을 받은 빛진 자들이기에 이제 우리 모두는 강도를 만난 자를 진실한 마음으로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교회 안팎의 어려운 상황과 뜻하지 못한 재난으로 힘겨워하는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헤아리며 주님의 사랑으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받는 자로만 머물지 말고, 받은 사랑을 소외받은 자, 병든 자들에게 베풀라고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셨음을 기억하고, 비록 교회의 재정이 어려운 형편이 계속되는 상황이지만 서울교회의 목표인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를 위하여 2023년도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는 구제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구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서로 배려하며 베푸는 서울교회가 됩시다



이강인 장로
(관리위원회)

새로 맞는 2023년은 분명 서울교회가 변화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관리위원회는 주차관리부와 식당관리부(만나홀)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주차장과 성도의 교제가 있는 만나홀은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입니다.

2022년부터 점점 새로운 차량이 늘어나고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매 예배 때마다 성도님들의 자동차가 차고 넘치던 지난날의 주차장에 비하면 한적하지만 주님께서 올해 교회 주차장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기 위해선 기존 성도들의 배려가 요구됩니다. 주차 시 주일에 종일 주차를 해야 하는 직원과 교역자, 종일 봉사자는 지상 1층과 지하 3층에 주차해 줄 것과 지하 1, 2층에 주차하시는 성도님들 중 앞열에 주

차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반드시 출차 혹은 이동을 하시어 뒷 열에 있는 자동차가 출차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를 하실 때는 안쪽부터 해 주시고, 주차 라인을 잘 지키시어 자동차를 라인의 중앙에 주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한 주차위원의 안내를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오시거나 가시면서 혹시나 주차장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를 배려해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만나홀에서 시작합니다.

만나홀을 지속적으로 청결하게 관리하여 성도님들께서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는 공간이 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배식이나 드신 식기 반납 등 식당관리위원들의 지도에 잘 따라주셔서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소서



안인호 장로
(재정위원회)

은혜로 2022년을 보내고 2023년 새해 새 날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더 큰 은혜 받았음에 감사하며 저의 섬세하지 못함으로 야기된 일들을 겸허히 반성하며 되풀이 되지 않기를 위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점검하며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부정적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지 않기를 기도하며 연말을 지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고(三高)의 파고가 너무 심하여 삼고(三苦)라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경제 여건임에도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세계경제 상황이 어느 때에 진정되고 회복의 전환점이 만들어질지 불확실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구별하여 귀한 봉헌물을 드린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드린 봉헌물은 서울교회의 재정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땅끝까지 전파하며, 이웃을 섬기고, 성도님들의 신앙성숙을 도모하는 등 선교와 구제와 교육의 세 기둥을 세우는데 사용됩니다.

금년 다시 시작하는 선교헌금, 지원교회헌금, 비전 2030헌금을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년간 계속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 예산을 수립, 집행되는 2023년이 되기 위하여, 재정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지출을 줄이는 긴축적인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입니다. 모임의 보고와 순서지는 컴퓨터를 이용한 화면으로 대체하여 종이 소비를 줄이며, 불필요한 전등은 소등, 폐회 전에 미리 냉난방을 끄는 등 실천을 통하여 긴축에 동참하는 마음을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신 말씀대로 재정위원회는 예산과 집행에서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청지기의 역할을 열심으로 잘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영적으로 성장하며, 가정과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 재정도 풍성하게 하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서울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울교회 부흥의 마중물이 되게 하소서



서은석 장로
(건축 및 건축물관리위원회, 교구위원장)

건축 및 건축물관리위원회는 서울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여러 토대를 마련하고 주의 전을 아름답게 유지하며 교회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교회 분쟁 과정에서 충분히 관리되지 못하고 여러 시설물이 훼손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면서 훼손된 부분을 개선 조치하고 영상시설을 보강하는 등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이라 여깁니다.

2023년 새해에도 미진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 조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성전이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언제라도 알려주시면 신속히 개선 조치하여 아름다운 성전에서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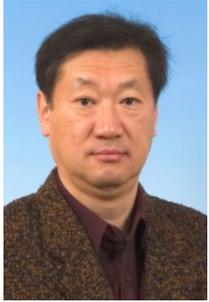
배하며 교회학교 학생들이 말씀으로 양육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구위원회는 서울교회 성도들의 삶의 터전을 중심으로 기존 16개 교구에서 9개 교구로 개편한 두 번째 해를 맞아 서울교회 성도로서 소속감과 지역에서 작은 교회로서 활동과 결속력을 다지는 공동체적 삶이요, 신앙입니다. 교구별로 작은 모임을 활성화하고 연합모임 등을 통해 교구 활동을 활성화하여 코로나19로 느슨해진 다락방 활동과 성도들의 결속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교회 예배와 교회 활동 참여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구장님을 비롯한 교구 일꾼 그리고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023년은 서울교회가 부흥하는 마중물 역할을 교구위원회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을 이끌 일꾼들에게 듣는다

 신임 스테반회 회장

교회 부흥을 위해 봉사와 전도에 참여하는 스테반회 회원이 되자



홍창훈 안수집사
(2023 스테반회 회장)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저물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교회의 분란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로 서울교회는 다시 회복의 자리를 잡았고 예전의 서울교회의 모습을 찾기 위해 담임목사님을 필두로 장로님들과 서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울교회의 부흥을 위해 각기 몸담고 봉사하는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속적인 중부유럽의 국지전의 후유증과 아직도 소멸되지 않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고가 있어 온 국민들의 마음이 편안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올해 우리 스테반회의 회원들도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열심히 교회 봉사와 전도를 통해 '천국 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의 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세우고 실행할 계획입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실천하고 봉사에 참여하는 스테반회 회원이 되자

타이틀만 안수집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맞는 교회의 봉사와 모든 일에 솔선수범으로 참여하는 것이 안수집사로서의 진정한 자격이라고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른 성도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서로 합심하고 도우면서 주님의 일을 해 나간다면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할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정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스테반회 회원이 된다

타이틀만 안수집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에 맞는 교회의 봉사와 모든 일에 솔선수범으로 참여하는 것이 안수집사로서의 진정한 자격이라고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른 성도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서로 합심하고 도우면서 주님의 일을 해 나간다면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 반드시 해결할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인류의 구원을 위해 더없는 사랑과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주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과연 주변에 가까운 지인이나 성도들에게 조금이나마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었는가요? 서로의 생각과 각자 추구하는 이상과 사상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질시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하겠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보듬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모범적인 기독교인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정의 구현이라 하겠습니다.

3. 서울교회 부흥을 위해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전도에 힘쓰는 스테반회 회원이 된다

교회의 어려운 시기 동안 자의 반, 타의 반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서울교회를 위해 불의와 맞서 싸우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성도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분들의 희생이 희석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전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전도사역에 스테반회 안수집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때입니다. 서울교회의 기존 조직화된 전도팀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시간이 허락된다면 교회 주변의 노방전도로 오가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 전도에 온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스테반회 안수집사님들이 영적 신앙의 함양을 위해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서울교회가 예전보다 더 아름답고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2023년도 스테반회에서는 위 3가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임 권사회 회장

순종하는 여종들이 여기 있나이다



장호림 권사
(2023 권사회 회장)

주를 사모하는 아주 작은 자에게 감당하라고 권사회를 맡겨 주시었으니 주님께서 불답이 되어 주실 줄 믿고 2023년 권사회를 위하여 헌신할까 합니다.

교회의 정신적으로 울타리가 되어주신 은퇴 권사님들과 시무 권사님들의 헌신적인 교회 사랑이 있었고, 교회의 분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성도들이 흠여짐 없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한 권사들이 있었기에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지 않았나 아련하게 기억해 봅니다.

이중윤 원로목사님께서 시무하실 때인 2005년 이후 저는 집사로 봉사할 즈음 교회의 큰 행사로 각 봉사 현장에서 봉사자들이 묵묵히 봉사하는 모습과 권사회 소속 권사

님들께서 분주히 움직이며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권사가 되면 당연히 바빠 봉사하는거구나 싶었습니다.

현재 권사회와 저의 현재 책임도 그 자리인 듯합니다. 서울교회가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 역동적이며, 운동력 있게 교회의 비전을 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권사회 모든 권속들이 지지치 않게 하사 믿음의 어머니들로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주께 모든 것 맡기고 함께 손잡고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온전히 지키게 하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즉각 달려가는 자 되게 하소서.

지난주 우리 교회는



지난주 찬양예배 시간에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와 섬김의 도리를 다하고 총회헌법과 서울교회 규정이 정한대로 정년이 된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들의 은퇴식이 있었다. 은퇴자는 다음과 같다.

- 장로 : 임상현 송인권 · 안수집사 : 김만운 김종철1 손태현 이강전 최임수 홍두화
- 권사 : 권성자 김미숙5 김진숙 김찬진 신금전 신정순 이안순 이영자1 전성희 전희정 조숙자 주성숙 주화인 채혜숙 한옥순



지난주 찬양예배 시간에는 장한 어머니 시상식, 성경통독 시상식을 가졌다.

지난주 3부 예배 시간에 영아 축복기도 시간을 가졌다.
(왼쪽) 5교구 김범석 성도 · 김고은 성도 가정 자녀 김주은 영아
(오른쪽) 7교구 하상영 안수집사 · 공해원 집사 자녀 하예린 영아

(사진 : 정승균 안수집사)



지난 주일은 성탄감사주일로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드렸다. 또한 사라전도회가 준비한 크리스마스 빵을 받으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사진 : 유은경 집사)

신임교역자

현종필 목사



- 영남신학대학교 졸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
- 장로회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졸
-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최종국 전도사



- 단국대학교 영어 심리학과졸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손주찬 전도사



- 전남대 전자공학전공 졸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과 재학중

김가은 전도사



-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재학중

배인혜 전도사



-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졸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재학중

신년 감사예배

성찬식 :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결·예산 공동의회 : 찬양예배 후

2023년 신년 첫 주일인 오늘 우리 교회는 신년을 감사하며 신년 첫 성찬식을 거행하며 신년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찬양예배 후에는 예·결산을 다루는 공동의회가 열린다. 등록된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은

모두 참여 바란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로 출발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여 은혜 충만한 2023년 되기를 소망한다.

농어촌100교회 · Vision2030 ·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모집

2023년도 농어촌100교회 운동과 Vision2030 운동, 한가정 한선교사 운동 후원을 올해부터 재전개한다.

후원을 원하는 성도들은 오늘 주보 삽지인 후원 접수 용지를 작성하여 로비에 비치된 접

수함에 넣어 주시기 바란다.

올해도 따뜻한 나눔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민족,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열린프로그램 모집

교육위원회(위원장 : 김혜언 장로)는 글로벌 환경으로의 변화에 맞는 교회 문화의 올바른 문화 나눔의 정착과 말씀에 기반한 찬양 문화를 형성하고 하나님과 교회 중심의 리더 양성을 고취하고자 기존의 교회 열린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대상 : 서울교회 성도, 교회학교 학생들
- ② 클래스 구성 및 강사 : 서울교회에 출석 세례 교인 중 문화 나눔을 기대하는 전문가

③ 클래스 운영

- 클래스별, 3개월 단위로 10주 Course 자율 운영
- 레벨 적용 필요시 초급, 중급, 상급으로 구분
- 수강인원은 5-10명 이내로 제한 (최소 수강인원 미구성 시 폐강)
- 운영비 : 각 클래스당 월 15,000원 (학기당 45,000/인, 교회 45,000/인 지원)

구분	요일	시간	과정	장소	강사
기타	주일	13:40	10주	505호	박민서 집사
		14:20	10주		
클래식기타 합주	주일	12:40	10주	609호	장윤식 집사
통기타	토	10:00	10주	505호	김상윤 선생
베이스기타	토	11:30	10주	505호	
드럼(리더반)	금	13:00	10주	101호	윤주일 집사
드럼(일반)	토	13:00	10주	101호	윤주일 집사, 한도연 선생
조이스워십반	토	10:00	10주	701호	김보영 선생

연말정산

연말정산 자료를 원하는 성도들은 seoulch@hanmail.net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란다.

- ① 성명 / ② 주민번호 / ③ 전화번호
- ④ 주소 / ⑤ 가족합산 여부

연말정산 자료는 파일로 수신 이메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린다.

· 문의전화 : 02-558-1106 (담당: 송미라 권사)

* 제공된 개인 정보는 연말정산 후 삭제합니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 100-034-868968
- (대한예장 서울교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김준현 권동영 김종훈 김재용 김요한 이상민 한지원 문영훈 이준우 정진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유동연 허성강 안중호 소위 백승규 중위 황수지 소위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김정균 소령

동정

- 사임 : 심우진 목사, 안용곤 부목사, 조동수 부목사, 허은 전도사, 이대원 전도사, 정기성 전도사가 개인 사정 상 2022년 12월 25일자로 사임하였다.
- 식사 제공 : 3교구 최근보 집사·김은희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드리며)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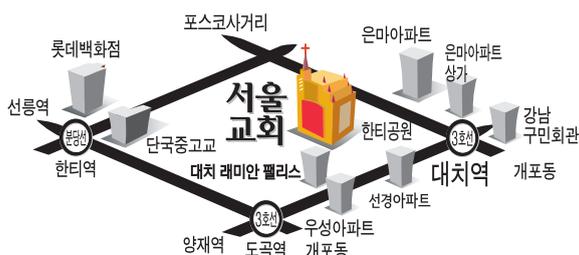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새해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되게 하소서.
2. 신년감사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소서.
3. 코로나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전쟁과 분단이 있는 곳에 평화의 소식을 허락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I부 예배	오전 9시
	II부 예배	오전 11시
	III부 예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일예배	I부 예배	오전 11시
	II부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민스터 홀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